

與 “코로나 극복” vs 野 “정권 심판” 명절 앞 키워드 경쟁

민중, 손실보상제 등 민생 회복 초점...국민의힘, 소상공인 애로 쟁점화
설 민심, 재보선·대권 가능성...재보선 주자들 전통시장 돌며 민생 홍보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밥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여야간 '키워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을 부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민심 변화가 정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실상 재보궐 선거전 뿐 아니라 대권 민심을 엿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7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정부·여당 지지 여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코로나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설 연휴를 전후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부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마친 뒤 2월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나 김영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정치 쟁점을 연휴까지 끌고 가는 동시에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듬으면서 정부 실정을 부각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가족이 모이고 싶어도 모임이 없는 설이 됐다"며 "설을 설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민생 경제를 회복 불가

능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원내에서 오는 8일 정책 의총을 소집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론을 조율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야 재보선 주자들은 당 차원의 여론전에 발맞춰 일제히 민생 행보에 나선다. 장을 순회하며 민심을 청취하고 물가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3차 혁신안 발표 김중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 민주당 재창당' 등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법원장 녹취록과 판사 탄핵은 별개”

여야, 주말에도 설전...민주당 “본질 호도” vs 국민의힘 “김, 물러나야”

여야는 김영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싸고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 지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 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쟁점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

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김영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여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총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면서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민주당 3차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 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설 리강령과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1~3차 혁신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종합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인 “서울시장 보선,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안철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단일화에 자신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과거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원샷 경선’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스스로 불안정하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의 입당설에 대해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자기가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입당할 수 없다고 한 분”이라며 “자기가 내게 솔직히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 양반(안 대표)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식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 국민의힘이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게 합당이 되겠다”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희망 사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연히 사면해 주면 좋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사회연대기금 실행 기업에 혜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사회연대기금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세제혜택 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정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또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한국형뉴딜에 문화뉴딜의 포함, 지역소멸의 시대에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 주요 경제분야의 이슈 등에 대해 질문

했다.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플랫폼 기업 도어대시(DoorDash),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사회연대기금을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BMW, 지멘스 등을 제시하고 “ESG(환경·사회·조직원)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세제혜택 등을 줌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삼석 “대통령 직속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 설치될”

대통령 직속의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4년 UN이 세계 가족들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확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며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출대와 불평등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도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도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은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증식성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